이대서울병원 정식개원, 한국 의료의 새로운 지평 기대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이 5월23일 병원 북문 광장에서 정식 개원식을 갖고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으로서 한국 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을 다짐했다.

이화그레이스 연합 합창단의 축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의 성경 봉독 및 기도, 테이프 커팅,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환영사,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의 기념사, 박미혜 이대서울병원 진료부원장의 이대서울병원 소개,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은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며 "새로운 병실 구조와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진료 시설, 자연친화적이고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병원 환경 등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환자중심 병원이 되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차별화된 강점과 역량은 더욱 강화하며 부족한 점은 적극 보완해 환자에게 새로운 만족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대서울병원은 높아진 의료 수준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료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32년 전 보구녀관의 첫 소명을 기억하며 21세기 여성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개원식 후 병원 안으로 이동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도 가졌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이대서울병원이 건립 과정에서 건축 기금을 기부해 준 기부자를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이대서울병원 1층 로비에 만들어졌다. 이대서울병원은 새로운 개념의 환자 중심 스마트 진료 환경을 바탕으로 뇌종양 수술의 대가 김선호 교수, 폐암 명의 성숙환 교수 등 신규 영입한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과의 협진으로 국내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유 경험을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은 지하 6층, 지상 10층의 1,014병상 규모로 국내 대학병원 최초 기준 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의 병실 구조를 갖추고 지난 2월 7일 진료를 시작했다.

5월 퇴방약 20품목 신규 등재···총 648품목 집계

이달 원가보전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20여 개 품목이 새롭게 등재되거나 가격이 오르며 전달 대비 큰 변동을 보였다.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은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에서도 제외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5월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목록은 648품목으로 전달 대비 14품목이 추가됐으며 변경 7품목, 삭제 3품목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원가를 보전해 시장 철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5월 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일부 개정의 후속 발표이다.

신규 추가 품목은 최근 4개월간의 추가 품목을 합한 수치보다 많았다. 실제 퇴방약의 올해 현황을 살펴보면 1월 637품목(추가 7품목), 2월 636품목(삭제1품목, 변경 1품목), 3월 636품목(변경 6품목), 4월 637품목(1품목 추가)으로 4개월 동안 새롭게 추가된 제품은 7개뿐이었다. 이달 신규로 등재된 14품목에는 대한약품공업의 제품이 가장 많았다.

대한약품공업의 대한디-만니톨주사액이 함량별로 8품목을 퇴방약 목록에 올렸으며, CJ헬스케어의 씨제이만니톨주사액 2개 품목도 퇴방약으로 등록됐다. 이어 JW중외제약의 중외15%만니톨주사액 등 4품목이 퇴방약으로 지정되면서 생산원가를 보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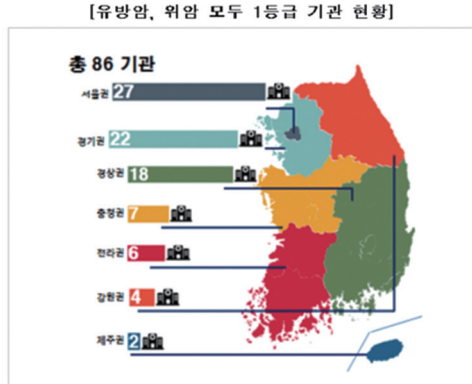
변경된 7품목에는 ▲동화약품의 파목신시럽 ▲이연제약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 동인당제약 동인당파스과립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 ▲메디코의 이지-에이치디현탁용분말 등이 생산원가보전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으며, ▲지엘파마의 지엘아세트아미노펜정 0.3g/0.5g은 제품명·제약사명이 크라운제약에서 지엘파마로 바뀌면서 변경처리됐다.

반면 삭제된 품목은 일양약품의 알타질주, 한국엠에스디의 프레그닐주5000IU, 태준제약의 태준이지시티액 1.5 3품목으로 확인됐다.

삭제 사유로는 알타질주는 양도품목 삭제, 프레그닐주5000IU와 태준이지시티액 1.5는 허가취하로 인해 삭제됐다.

유방암·위암 치료, 1등급 병원 전국 고루 분포

[유방암, 위암 모두 1등급 기관 현황]



유방암과 위암치료를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과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방암 6차, 위암 4차 평가는 2017년 입원 진료 분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별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유방암·위암 평가 모두 평균 97점 이상으로 높은 결과 치를 보였다.

또한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86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44개)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이번 유방암 6차 평가와 위암 4차 평가는, 해

당 수술을 하고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원급 이상 185기관, 204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1차 평가에 비해 각각 2.74점, 2.02점 높아진 97.82점과 97.32점으로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평가지표별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의 적정성 등 주요 영역에서 전 차수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은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잔여 종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선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지표로, 1차 평가결과 대비 13.2%p 크게 상승했다.

위암의 경우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은 암 재발을 낮추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므로 수술 후 8주 이내에 항암치료를 시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며, 1차 평가결과 대비 7.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각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점수로 산출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1~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이중 1등급 기관은 유방암 88기관(83.0%), 위암 107기관(95.5%)으로 전 차수 대비 유방암은 동일하고, 위암은 5기관 증가했다.

아울러 유방암·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기관과 종합병원 44기관인 총 86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권역에도 2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암질환은 2017년 국내사망률 1위의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9,180명으로 전년도(21만 6,542명)에 비해 5.8% 증가했다.

'인보사' 상장폐지 위기·집단소송 등 벼랑끝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 결정에 이어 상장폐지 논의, 환자 집단소송 등에 직면하며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의 형사고발과 함께 향후 줄줄이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선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포함해 25억원 수준이지만 지난 27일부터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를 모집 중이어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한 것"이라며 "직접 손해액은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도 (책임에서)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이미 투약한 환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소송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주주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를 모집 중이다. 일정 인원이 모아지면 1차 집단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줄줄이 소송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파트너사인 먼디파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인보사에 대한 일본 판권을 5억 9160만 달러(한화 약 6677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와 설정한 계약금 총액 300억원 중 기 수령한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다.
질권 설정 기간은 2019년 5월 7일부터 한국 식약처가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FDA가 미국 임상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였으나, 이번 식약처의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게 됐다.
이미 지난 2016년 11월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해 12월 계약 취소를 통보한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먼디파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부터 순차적 DMF 등록 확대…퇴방약 제외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원료의약품(DMF) 등록이 확대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2017년 12월 25일부터 제네릭의약품을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2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MP저널